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 “누가복음 9장 1절~17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17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410장(새찬송가 310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상대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도 활동이 오늘에 와서는 다양한 매체, 고도로 발전된 교통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과 대상의 제한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악령을 제압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음 전도 현장에서 치유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일은 제자들뿐 아니라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임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전도활동은 전파(원어: 케리그마)와 가르침(원어: 디다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가르침은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은 일방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까닭 즉 구속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케리그마)와 교육(디다케)은 구별되지만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에는 가르침이 포함되고, 가르침에는 전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전도와 교육은 충실하게 행하고 있으나

믿음의 기도에 의한 치료 사역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의술과 병원의 역할 증대를 말합니다. 의약과 의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시 병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온갖 물질 속에 치료하는 성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치료의 성과는 전적으로 의사와 약사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환자의 병이 치료되지 않거나 악화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역시 전적으로 의사와 약사의 책임이다.”라고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은총을 기어코 부인하려고 고집하는 분은 의술이 미치지 못함에도 치유되는 현상을 가리켜 ‘자연 치유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형용하는 문제 삼을 것 없습니다. 자연치유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여도 치유의 결과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신유사역은 “사도 시대에 국한된 것이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병약한 자들을 위해 치유사역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한부 명령이라고 명시된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중단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침착가감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치유 받으려고 그에게 나아오는 병약한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된 제자들이 기도하는 경우에는 다 고침 받지 않았습니.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있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딤후 5:23)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는 기록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육체에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주님께 세 번 간구하였으나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아니한 사실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못하여도 신유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또한 병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혜가 중단된 적이 없으며 오늘날도 믿음의 기도와 합심하여 간구함을 통하여 병 고침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믿음과 기도로 치료받은 사례들은 간과하고 치료되지 아니한 사례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도 치료되지 않는 사례로 인하여 신유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의술로 치료되지 않는 사례들로 인하여 병원치료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치료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없을지라도 질병 치유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약과 수술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로 인하여 신유를 믿고 기도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인생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

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시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치료받는 일도 허다합니다. 설혹 치료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한 일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한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신유를 믿고 기도한 성도는 “하나님의 별다른 뜻이 있었구나.”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겪는 어떤 고난도 무의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오! 주님,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병든 자가 치유되도록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준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이론을 파쇄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걸어 다니며 단기간의 순회 전도를 할 때는 되도록 홀가분한 차림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일꾼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방도로든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지시는 당시의 상황에서 적용할 수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시대와 형편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적용해야 하는 철칙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한 이유는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므로 인해 발생하게 될 오해와 폐단이나 시간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때 마음 상할 것 없습니다.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복을 차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한 거절행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봉 왕 헤롯의 반응이 이를 말해 줍니다. 분봉 왕 헤롯은 여러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

의 목을 벤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혹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 두려웠던 것입니다. 교회를 훼파하고 성도를 박해한 사람이 갖게 되는 두려움이 그가 회개할 계기가 되게 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그 두려움을 억제하면 더 없이 불행한 일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뱃새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열 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 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삽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 기록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곳에 모두 기록된 것은 뱃새다 빈들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 네 곳의 기록을 종합하여 설명하면서 함께 신령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봄기운이 완연(宛然)한 어느 날 순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보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얻게 하려고 가버나움을 떠나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도착한 곳은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뱃새다 마을 근처 빈들이었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뱃새다 들로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떡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이백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 일을 일한 품삯에 해당됩니다.

열두 사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있는 이곳은 광야이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주변 마을들과 촌에 가서 목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빌립이 이미 예수님에게 하였던 말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대략 오십 명씩 모여 앉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봄철이라 그곳에 푸른 잔디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디 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성인 남자들 숫자만 하여도 오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축복하신 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같은 전달이 계속되었고

드디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찻습니다. 이 은혜롭고 기이한 사건에는 귀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고통과 결핍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죄 사함과 영생의 진리 외에 건강과 경제 그리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모두를 배우고 적용하는 생활입니다.

**둘째, 주님의 의향과 뜻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하시니 빌립은 즉시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어치의 떡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산술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낙제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기적적 방법으로 먹이실 것을 걱정하시고 질문하신다는 것쯤은 빌립이 간파했어야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빌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거나 아니면 빌립을 통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있는 이곳은 광야이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주변 마을들과 촌에 가서 목게 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빌립이 이미 예수님에게 하였던 말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는 멍청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동안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에 내포된 의향과 뜻을 깨닫지 못했으니 미련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양 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숲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 또한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양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말에 능하지 못하고 입이 뱃뻗히고 혀가 둔한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님, 제발 밍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하니, 하나님이 노하신 음성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로소 모세는 불가능한 이유를 찾아서 열거하던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떠났습니다. 애굽 왕과 담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문제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의향과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향과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능

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심을 믿고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께서 일하시는 절차와 순서는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대략 오십 명씩 모여 앉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지시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먹을 떡이 없는데 떡 먹기 위한 준비부터 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발전적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였고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비상한 일을 하려고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먼저 많은 사람이 떡을 먹을 기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식사하기 위해 둘러앉으라고 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절차와 순서를 간섭하려고 나서는 무례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심은 우리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라는 안드레의 보고를 받은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이가 가진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는데 이는 가혹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테네를 방문한 사도바울이 청중에게 설교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행 17:24,25)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이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핍을 해소하고 풍요하게 되는 놀라운 원리가 여기에 있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다섯째, 가진 것이 초라하고 적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고 그것을 축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시며 축복하신 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의 숫자만 오천 명이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변변치 못한 것이나 사정과 형편이 좋지 아닐 경우는 오히려 감사하기와 축복하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뱃새다의 빈들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고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 모습으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